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성과

기획-성장-활용 단계별 맞춤 지원
올해 웹툰 지원사업으로 34편 제작
창작자 1196명 양성·174명 전남 정착
순천 웹툰·애니메이션 특화도시 전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이 남도 관광·예술·생태 중심 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이하 전남CKL)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남CKL은 올해도 웹툰·애니메이션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작품 제작 지

원 사업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웹툰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34건의 단편이 제작됐으며 이중 2건은 웹툰 원작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수익화 모델을 발굴하고 콘텐츠 창작자 및 기업 육성을 이끌었다.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이머시브랩’·‘지하1층실험실’·‘프로젝트 713’ 등 총 13개사의 지역 특화 소재 웹툰 콘텐츠 제작도 도와 우수문화콘텐츠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남CKL은 웹툰 창작자가 되기 위한 기초부터 전문 작가의 다양한 테크닉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도 실시했다. 일반인과 전문가 과정 등 150여명이 참여한 ‘웹툰 창작 아카데미’를 운영해 콘텐츠 창작자 발굴 및 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성과를 창출했으며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웹툰·캐릭터 창작 아카데미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멘토링과 제작 비용 지원으로 총 15건의 작품을 제작해 저작 등록했다.

순천지역 웹툰 관련 대학과 웹툰 산업 종사자 간 웹툰 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1박 2일의 웹툰 캠프를 비롯해 총 5회 콘텐츠 분야 전문가 강연으로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본역량 함양 및 스킵 향상을 위한 콘텐츠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웹툰 분야 창작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30여편이 접수돼 새로운 소재 및 우수 창작자 발굴의 계기를 마련했다.

콘텐츠 저변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전남도·순천시와 함께 지난 10월 27~28일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일원에서 ‘2023 전남웹툰페스티벌’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역작가·지역대학 작품전 수상작 등 총 100점의 웹툰 작품

을 전시하고 웹툰 취업컨설팅 부스도 운영해 웹툰에 관심이 있거나 작가를 지망하는 청소년 및 청년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타지역으로도 발을 넓혀 경북문화재단이 9월 22~23일 이틀간 개최한 ‘글로벌 K-스토리 페스티벌’에 참가해 10점의 우수 콘텐츠를 선보이며 판로 개척과 시장 진출 확대를 꾀했다.

그동안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1196명의 창작자를 양성(교육)하고 174명의 작가 및 기업이 전남에 정착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제작지원사업을 참여한 박종현, 서승준 작가는 최근 네이버 웹툰을 통해 ‘죽가’, ‘더 훔’을 정식 연재를 시작했다.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창작자와 기업이 지역에서도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간 전남CKL의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 순천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웹툰과 애니메이션 특화 도시 사업과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2023 정월박람회’ 성공 개최에 이어 ‘한국형 월트디즈니’ 조성을 목표로 남해안벨트 중심도시로의 도약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며, 내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3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5개 애니메이션 기업 유치, 청년 인구 650명 이상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콘텐츠코리아랩 관계자는 “수도권에 인재가 편중되는 콘텐츠 산업 속에서 전남 콘텐츠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과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남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지역 인적 자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



롯데백, 겨울철 양모 카페트 특집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프리미엄 양모 카페트 특집 행사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양모는 수분을 흡수 및 발산해 실내 활동에 최적화된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포근하고 따뜻한 촉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겨울철 인테리어로 제격이다. 9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카페트, 러그 등을 품목별로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총 구매 금액별로 추가 할인 프로모션도 동시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제9회 제일창업박람회in 광주’ 14일 개막

오는 16일까지 김대중센터서
호남 토종 프랜차이즈 등 참가

‘제9회 제일창업박람회in 광주’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에서 20년 이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진행해 온 ㈜제일 좋은전람이 호남·전라 지역에서는 1년에 1번 개최하는 호남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로, 호남지역 토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주)제일좋은전람은 호남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20개 이상의 호남 토종 프랜차이즈와 전국에서 가맹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타 지역 우수 프랜차이즈를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창업 정보 및 불거리를 제공해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준비했다.

참가업체 업종은 외식(한식, 중식, 일식), 치킨, 피자, 분식, 샐러드 뿐만 아니라 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주점, 디저트와 함께 비외식 아이템인 스테디카페, 공부방, 자판기 등 무인창업도 가능한 다양한 70여개 창업아이템들이 참가한다.

광주창업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는 ‘카페

창업쇼 in 광주’에서는 창업 선호도 1위인 카페 창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개인 카페 창업 컨설팅과 로스팅 체험 및 카페 창업에 관련한 세미나 등 프랜차이즈 카페, 개인 카페 창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다.

행사 전날인 13일까지 ‘제일좋은전람 홈페이지(www.yesexpo.co.kr)’에서 사전등록 후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참가 브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제일좋은전람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제 1096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	12	16	19	23	43	3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5억3939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979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4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은행,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큰 성과

학습·예술 인재 9·10호 선정
대학 진학까지 지속적 후원
고병일 은행장 “더욱 체계화”

광주은행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공헌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최근 본점에서 고병일 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9호와 10호 선정식을 가졌다.

이번 선정식에서는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9호와 10호로 선정된 청소년을 본점에 초청해 각각 후원금 300만원과 함께 의류와 미술도구 등 평소 갖고 싶어 하는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정진하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및 예체능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준수한 학생

을 선발해 대학 진학까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9호로 선정된 청소년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으로 지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업성과 리더십을 보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습 분야 미래 인재다.

10호로 선정된 청소년도 한부모 모자가정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며 다수의 대회 수상 경력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예술 분야 미래 인재다. 광주은행은 두 청소년을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로 선정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기간까지 각각 예술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는 총 10명으로 이들 중 1~4호는 대학입학 후에도 광주은행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지역 우수인재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꿈나무 1호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장

학생으로 재학 중이며, 2호는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은 선수로 성장했다. 3호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으며, 4호는 전남대 경영학부에 진학해 학업 외에도 멘토링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현재 후원이 이어지고 있는 5호는 한국무용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며 광주시립무용단과 계속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6호와 7호는 학습 분야 인재로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8호는 스포츠댄스 분야 인재로 학업과 재능개발에 집중하며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고병일 은행장은 “앞으로도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꿈나무, 장학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DH글로벌 “車 전장 사업 경쟁력 강화”

대우에이피 경영권 인수
DH오토웨어와 시너지 창출

DH글로벌은 대우위니아글로벌 계열사인 대우에이피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자동차 전장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DH글로벌에 따르면 최근 대우에이피 발행주식 총수의 48.05%인 745만5220

주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 DH글로벌은 대우에이피 사명을 DH오토리드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우에이피는 지난 2001년 자동차 스티어링휠 사업으로 출발해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 2260억원에 달하며 자동차 스티어링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이다.

DH글로벌은 대우에이피 인수를 통해 현대차·기아 1차 벤더 진입은 물론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우에이피의 해외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영업망 확대와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과의 협업을 통한 북미 자동차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DH오토웨어가 멕시코에 새로 구축할 현지 공장 함께 북미시장 고객사 다양화 전략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곽지혜 기자**

금호타이어-신토스, 지속가능 타이어 개발 ‘맞손’

금호타이어는 최근 유럽 석유화학 그룹 신토스(Synthos)와 지속가능한 타이어 원재료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타이어 원재료 중 석유계 원료로 만들어내는 부타디엔 가스 대신 알코올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가스인 바이오 부타디엔(Bio-BD)을 활용한 NdBR(올

트라하이스스폴리부타디엔고무, 반발탄성·내마모성·분진저감이 우수한 타이어와 골프공 등에 적용)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타이어 제조 공정에 친환경 합성고무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 체코,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둔 신토스는 자사 포트폴리오에 대해 ISCC+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지침 제도) 인증을 받았으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바이오 부타디엔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등 타이어 제조기업들이 환경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대표이사는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협업하고 꾸준한 투자와 집념으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친환경 원료와 타이어 제품을 개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